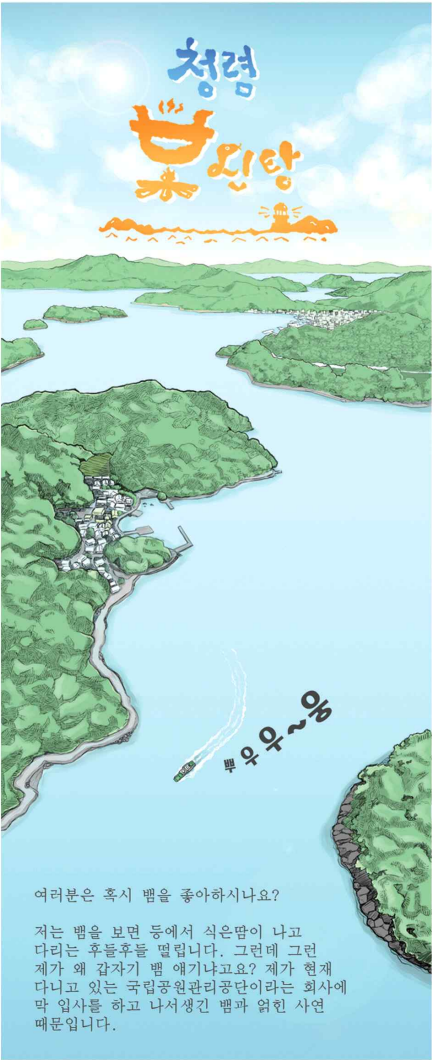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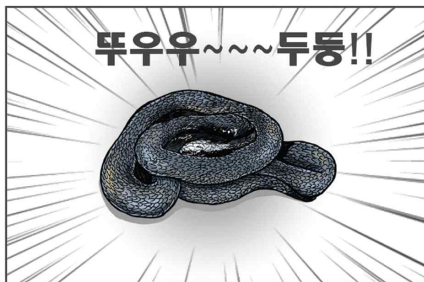
저는 모집 공고에 호기심이 생겨 지원서를 넣었고  
그것이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첫 인연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자연환경 안내원”은 자연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고 보전하는 일을 합니다.



뱀과 마주쳤던 그날도 저는 탐방객에게 소개할  
생태해설 자료 등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보길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순찰차로 제가 사는 마을을 지나는 순간 도로 위에  
2미터 정도 되는 건강한 암컷 먹구렁이 한 마리가  
밤 동안 떨어진 체온을 올리기에 딱딱한 도로에  
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 순찰차를 세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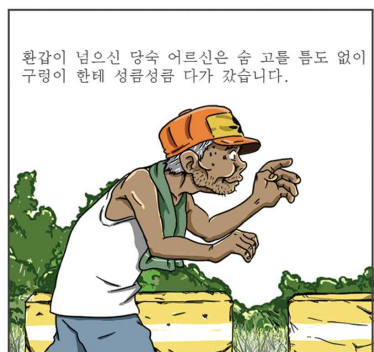
저는 뱀이 무섭고 겁이 났지만 도로에 올라와 있는  
너석이 혹시나 차에 치어 죽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얼른 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보내줘야겠다고 생각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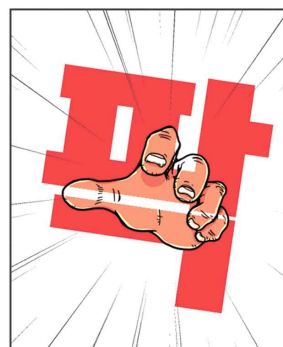
하지만 막상 뱀에 다가가려 하니  
긴장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때  
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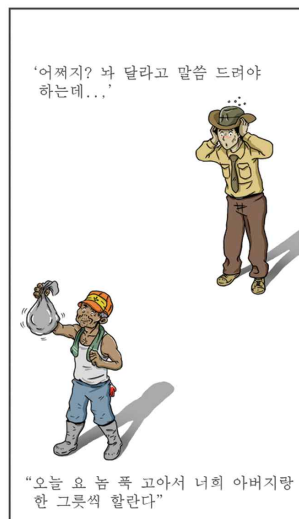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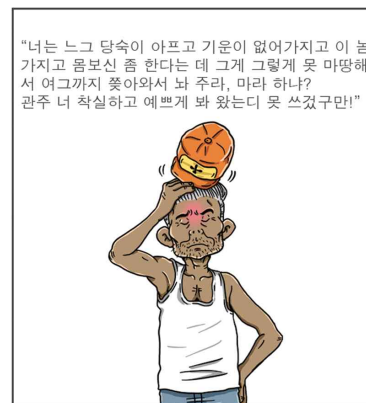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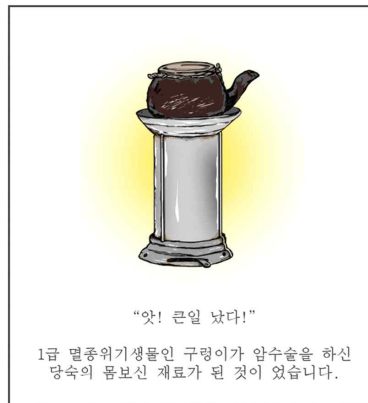


다급한 고향의 주인공은 바로 이웃에 사시는 오촌 당숙 어르신 이셨습니다.



당숙 어르신은 맨 손으로 등숙하게 구렁이를 잡았습니다.

"아따 고놈 겁나 실하네!~~허허"



당숙은 역정을내시며 대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 셧습니다.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저는 대문 앞에서 발만 동둥 구르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 다시 대문이 열리더니 당숙께서 나오셧습니다.

뱀을 잡고 있었던 당숙의 손에는 뱀 대신 만 원짜리 몇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당숙은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셧습니다.



저는 더 늦기 전에 용기내어 당숙 어르신을 불러 세웠습니다.

돈을 받은 저의 주머니는 마치 무거운 갓들을 담고 있는 듯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국립공원 직원이 보호해야 할 멸종위기야생동물을 잡아다가 돈을 받고 판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되었습니다.

마치 용담, 상아, 모피 등을 구하기 위해 멸종위기생물을 마구 잡아 죽이는 저녀 뉴스의 단골손님인 밀렵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차에 있는 봉투에 돈을 담고 다시 차에서 내려 당숙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대문은 잠겨있었고 당숙은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없이 봉투에 메모를 남겨 놓고 집으로 왔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들어서자 당숙 어르신이 아버지랑 말씀을 나누시고 댁으로 돌아가시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지?’ 궁금해진 저는 아버지께 당숙이 왜 오셨으며 무슨 대화를 나누셨는지 물어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웃으시며 당숙과의 대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숙 어르신은 어린 조카의 부탁을 모른 척 할수 없었 제가 퇴근 하면 뱀을 돌려주려 하셨는데 뱀이 알아서 도망 갔고 제가 남긴 메모를 보시고 풀어 주시기로 마음 먹은 거라 하셨습니다.





당숙 어린 조카가 말 삼하게 했다면 몰서하세요.  
차츰은 뱀일지라도 저는 국립공원 직원으로서 그  
뱀을 보호하고 자연으로 돌려보낼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생각해 주신 돈은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돈을 받는다면 처음 시작하는 직장생활의 첫 단추  
를 잘못 끼우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카 율림-



혈연, 학연, 지연에서 절대로 자유롭지 못한 우리 사회의 현실 속  
에서 저는 언제나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그때 그 구렁이 사건을  
떠올립니다.  
게게 있어 그날 본 구렁이는 저의 직장 생활에 있어 그 어떤 것보  
다도 좋은 경험을 하게 해 준 창립 보약이었습니다.

- 끝 -

그날 이후, 당숙께서는 저의 국립공원 직장 생활  
을 더욱 응원하고 격려해주셨습니다



아따, 그때 니가 그 뱀을 못  
잡아먹게 해서 내가 아직도  
병원에 다닌다. 이놈아~~~

직장생활 하면서 힘들 것인  
디 그때 같이 장직하고 소신  
있게 하면 된다.  
알겠제?"